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

공경태(전주대) · 김노창(전주대)

I. 서 론

한국 정부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7년 11월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들은 K-IFRS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K-IFRS에 준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은 규정 중심(rule-based)의 기준이고 역사적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K-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기준이고 공정가치 평가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측정은 Demaria and Dufour(2007)과 Heather(2009)에 의하면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하였고,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재량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주의의 관점은 다양한데, 첫째, Basu(1997)의 손익계산서 중심의 조건부적이고 일시적 보수주의의 관점이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쇄되어 사라지게 된다. 둘째, Feltham and Ohlson(1995)의 재무상태표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의 보수주의가 있다. 이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가와의 차이로 측정된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순이익과 순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하게 되어 시장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 관점이다.

K-IFRS가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회계처리규정을 지니고 있으나 보수주의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에서 재무상태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수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자의 의도적인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 및 비밀적립금을 감소시켜 지나친 보수주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득원가주의를 지양하고 공정가치 측정을 지향하는 K-IFRS는 보수주의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급여채무 등의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보수적으로 부채를 측정한다면, 불확실성에서 보수적인 판단으로 보수주의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K-IFRS에서는 금융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면서 퇴직급여채무에 대해 보험수리적 접근법에 의한 추정치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조건을 80%기준에서 50%기준으로 완화하였고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에 대한 인식 기준을 80%에서 50%로 강화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우발 및 충당부채의 인식가능성 증대로 보수주의의 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K-IFRS는 실질우선주의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을 인정하여 상각을 금지하여 재무상태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 불확실한 자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지양하도록 하여 보수주의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K-IFRS는 보수주의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민정 등(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2009년 및 2010년 K-IFRS 조기도입한 57개사에 대해 조기도입기업의 K-IFRS 도입 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기 도입한 기업의 보수주의가 K-IFRS 도입 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K-IFRS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간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설정하고 전면 도입된 2011년을 기점으로 의무도입 기업의 도입 전과 도입 후의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보수주의 측정은 Ball and Shivakumar(2006), Penman and Zhang(2002), Givoly and Hayn(2007)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기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의무 도입기업들의 보수주의는 K-IFRS 도입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모든 보수주의 측정치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의무도입기업의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해서 보수주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 제4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회계에서 보수주의(conservatism)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에 관련된 순자산 및 순이익의 금액을 모든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3조 일반원칙에서는 ‘2 이상의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것’으로 규정하여 보수주의를 강조하였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중성이나 보수주의를 충실한 표현의 한 측면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는 것은 중립성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기간에 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흔히 이후 기간에 재무성과의 과대평가로 이어지는, 신중하거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로 Demaria and Dufour(2007)는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프랑스 기업들이 보수주의적인 취득원가 평가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ung and Subramanyam(2007)은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의 증가에 대하여 약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보수주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최관과 전성일(2005)이 외환위기 이후에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었는지를 연구한 결과 외환위기 전보다 후 기간에 보수주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박종찬(2005)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이익의 적시성과 보수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정옥과 배길수는 기업의 특성이 회계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회계보수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금융기관차입금의 비중은 회계보수성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보수주의와 체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상장기업의 보수성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문상혁 등(2006)의 연구결과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장기적으로 자본비용감소를 초래하고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 기업의 장기적 수익률과 보수주의 측정치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정보 우위에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장기간의 회계이익을 고려하여 당기의 보수적 회계처리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백원선과 이수로(2004)의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의 이익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익보다 지속성이 낮았으며,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주가배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익에 대한 주가배수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최원욱 등(2011)의 연구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보수주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보수주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은 강민정 등(2012)의 논문이 유일하다. K-IFRS를 조기 도입한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IFRS 도입 후 보수주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FRS 도입 기업의 보수주의에 대한 주가이익배수는 미도입기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FRS에서 보수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표현의 충실성의 근본적 질적특성으로 보수주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보수주의는 어느 한 기간에 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흔히 이후 기간에 재무성과의 과대평가로 이어져,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 및 부채, 유 무형자산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제시하는 K-IFRS의 입장은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취득원가주의를 지양하므로 보수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실질우선주의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을 인정하여 상각을 금지함으로써, 재무상태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 불확실한 자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수적 회계처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보수주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IFRS에서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공정가치 중시는 공정가치측정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영자가 보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채무 등의 부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보수적으로 부채를 측정한다면 보수주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는 경영자의 재량권을 향상시키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보수주의를 증대시키게 된다. 셋째,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에 대한 인식 기준을 80%에서 50%로 강화하여 보수주의 증대가 예상된다. 넷째,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검토하도록 하여 주기적인 손상 검사를 의무화하여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이 높아져 보수주의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기에서 처럼 K-IFRS는 보수주의가 증대할 요인과 감소할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K-IFRS 도입으로 보수주의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보인다. 그러나 공경태와 최종서(2003)의 논문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K-GAAP와 K-IFRS는 기본적으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의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표면적인 회계기준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K-IFRS하의 감가상각 규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종전의 K-GAAP하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세무상 감가상각비 범위내에서 손금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서 상각비를 조기에 인식할 목적으로 정률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추정 및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을 모두 당해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K-IFRS의 도입과 더불어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내용연수를 늘리고 감가상각방법은 종전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고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¹⁾.

따라서 K-IFRS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2011년에 국내의 많은 상장기업들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고, 과거 회계기준에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과거보다 적게 계상하였다면 K-IFRS 도입으로 회계보수주의가 감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K-IFRS 도입 이후 회계보수주의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3.1 보수주의의 측정

선행 연구에서 보수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모형은 조건부 보수주의와 무조건적인 보수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조건부 보수주의는 손익계산서 중심의 보수주의로 Basu(1997)와 Ball and Shivarkumar(2006)의 모형이 있다. 보수주의 정도의 변화를 측정할 때 조건부적 보수주의는 이익의 과소 계상된 효과가 차기에 반전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이익이 과대 계상되므로 K-IFRS 도입 이후 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조건부 보수주의 모형으로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최관과 전성일 2005; 박종찬 2005)에서 분석대상 기간은 10년 이상이었다.

한편, 무조건부 보수주의는 재무상태표 중심의 보수주의로 기업의 호재와 악재라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인식하는 보수주의가 아닌 경제적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순이익과 장부가액을 낮게 계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무조건 보수주의로 대표적인 것은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비율을 이용한 Feltham and Ohlson(1995), Penman and Zhang(2002)과 Givoly and Hayn(2000)의 모형이 있다. K-IFRS가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도입 이후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보수주의로 측정되는 모형을 위주로 선행연구에서는 사용한 대응치를 보수주의를 측정하였고 단일 모형을 사용하는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강민정 등(2013)은 K-IFRS 조기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eltham and Ohlson(1995)의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eltham and Ohlson(1995)은 주가와 순자산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수주의 측정하며, 이 측정치는 순이익 및 순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 모형을 이용하여 첫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경태와 최종서(2013)의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의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주식공시로부터 감가상각 변경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546개 기업 중 281개의 기업이 2011년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CON_1 = 1 - (BV_{it} / MV_{it}) \quad (1)$$

여기서,

CON_1 = Feltham and Ohlson(1995)에 의한 첫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

BV = 순자산

MV = 시장가치

백원선과 이수로(2004)는 Penman and Zhang(2002)의 모형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의 계상으로 인한 적립금의 t년도와 t-1년도의 차이에서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손상 등을 포함하여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확장 모형을 이용하여 두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ON_2 = (DEP_t + BAD_t + RD_t + ADV_t + IMP_t) / MV_{t-1} - (DEP_{t-1} + BAD_{t-1} + RD_{t-1} + ADV_{t-1} + IMP_{t-1}) / MV_{t-2} \quad (2)$$

여기서,

CON_2 = Penman and Zhang(2002)의 확장모형에 의한 두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

DEP = 감가상각비

BAD = 대손상각비

RD = 연구개발비

ADV = 광고선전비

IMP = 자산손상액

MV = 시장가치

Givoly and Hayn(2000)은 여러 종류의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비영업발생액(nonoperating accruals)을 영업현금흐름 나눈 비율을 세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로 이용한다.

$$CON_3 = (-1) * (TA - OA) / A \quad (3)$$

여기서,

CON_3 = Givoly and Hayn(2000)의 모형에 의한 세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

TA = 감가상각비 차감전 총 발생액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영업현금흐름

OA = 영업발생액 = (매출채권증가분 + 재고자산증가분 + 선급비용증가분) - (매입채무증가분 + 미지급법인세증가분)

A = 총자산

비영업발생액(TA-OA)은 대손상각비, 평가차손익, 자산처분손익, 감액손실, 기타비용의 발생과 자본화 및 수익의 이연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크기 및 인식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다. 여기에서 비영업발생액(TA-OA)은 음(-)의 값을 가질수록 순이익은 보다 보수적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비영업발생액(TA-OA)과 보수성은 음(-)의 관계를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영업발생액(TA-OA)에 -1을 곱하여 비영업발생액과 보수성이 양(+)의 관계를 갖도록 한다.

조건부적 보수주의 측정치인 Basu(1997)의 모형은 주식수익률에 기업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중요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으나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익률이 기업관련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수익률이 이익을 변동시키기 보다 이익이 수익률을 변동시키는 관계가 더 클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Basu(1997)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보수주의 측정치로 Ball and Schvakumar(2005, 2006)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현금흐름과 발생액 사이에는 현금흐름의 반전 현상으로 인해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Dechow et al., 1998). 그러나 기업의 적시성 있는 이득과 손실로 인하여 발생액과 현금흐름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보수주의가 나타날 경우 경제적 손실의 경우 양(+)의 관계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Ball and Schvakumar(2005, 2006)의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K-IFRS 도입 이후의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모형은 Feltham and Ohlson(1995), Penman and Zhang(2002)와 Givoly and Hayn(2000) 모형을 이용한 세가지의 보수주의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강민정 등(2013)이 K-IFRS의 조기도입기업에 대한 보수주의를 측정한 연구모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CON_{1,2,3} = \beta_0 + \beta_1 IFRS + \beta_2 SIZE + \beta_3 RDADV + \beta_4 CFO + \beta_5 LEV + \beta_6 SG + \beta_7 BIG4 + \beta_8 MARKET + IND + \epsilon \quad (4)$$

여기서,

CON₁=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

CON₂=Penman and Zhang(2002)의 보수주의 측정치

CON₃=Giv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

IFRS=K-IFRS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값

RDADV=(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총매출액

CFO=영업현금흐름/총자산

LEV=총부채/총자산

SG=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BIG4=외부감사인이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ARKET=유가증권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IND=산업더미

연구모형(4)의 주요 관심변수인 IFRS의 회귀계수인 β_1 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가 증가한 것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보수주의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밖에 기업규모,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 매출액성장율, 대형회계법인, 유가증권시장 등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보수주의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손익계산서 중심의 보수주의 측정 모델인 Ball and Shivarkumar(2005, 2006)을 사용하여 집단소송주의 보수주의에의 영향을 분석한 최원욱 등(2011)의 연구모형을 준용하여 다음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ACC = \alpha + \beta_1 CF + \beta_2 DCF + \beta_3 DCF \times CF + \beta_4 IFRS + \beta_5 IFRS \times CF + \beta_6 IFRS \times DCF \times CF + \epsilon \quad (5)$$

여기서,

ACC=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총자산

CF=영업현금흐름

DCF=영업현금흐름이 음(-)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IFRS=K-IFRS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추가 연구모형(5)에서 K-IFRS 도입 이후의 보수주의 변화는 상호작용변수(IFRS×DCF×CF)의 회귀계수인 β_6 의 값으로 알 수 있다.

3.3 표본선정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보수주의의 변화를 검정하기 위하여 K-IFRS 도입 전 2년과 도입 후 2년간의 보수주의의 변화를 비교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계속회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²⁾ 중 다음 결격기준에 해당하는 관찰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 (1)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
- (2) 금융업 또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회사
- (3) K-IFRS를 조기도입한 회사
- (4) Fn-Guide로부터 자료추출이 불가능한 회사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는 2011년 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K-IFRS를 조기 도입한 회사는 자발적 조기도입에 따른 자기선택 편의의 가능성

2) K-IFRS 도입으로 별도재무제표의 관계기업주식의 평가에 원가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분법손익 반영 후 당기순이익을 연결재무제표의 지배주주귀속 당기순이익에서 구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4년간 계속적으로 공시한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을 배제함과 동시에 2011년 이전에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도입 전후의 기점인 2011년과 비교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분석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금융업과 지주회사는 업종 및 재무제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표본에서 제외되었고 자본잠식 기업은 재무구조악화에 따른 정보력의 왜곡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K-IFRS 도입 전과 후의 보수주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모형인 식(3)을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횡단면 표본을 이용하되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K-IFRS 도입 전후의 보수주의의 변화추세를 검토함으로써 K-IFRS 도입 이후의 보수주의의 변동을 확인한다. 횡단면 자료에 의존하여 시기별 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로 새로운 표본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표본이 제외됨으로써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업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³⁾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연속적으로 작성공시하고 4개년간 자료추출이 가능한 회사로 533개사의 종단패널을 구성하였다. 분석기간이 4년이므로 전체 관찰치 수는 2,132 기업-년도가 된다. 보수주의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와 산업별 분포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표본 선정과 산업별 분포

패널 A : 표본 선정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FnGuide 데이터로부터 자료추출이 가능한 기업			618
(제외) K-IFRS 조기도입 기업			(43)
(제외) 금융업과 지주회사			(42)
패널 표본에 포함된 기업 수			533
연구기간			4 years
총 표본			2,132
패널 B: 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	기업수	산업	기업수
도매 및 상품중개업	38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38
식료품 제조업	37	1차 금속 제조업	5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2	전자부품 및 영상제품 제조업	52
의료용 및 의약품 제조업	34	전기장비 제조업	48
출판업	24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8
종합건설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소매업	40	기타	42
		계	533

3) 패널표본의 구성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회사를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표본으로부터 전 연구기간 동안 FnGuide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가 추출이 가능한 회사를 선정하여 표본을 확정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및 단변량 분석

주요 검증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는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및 99%의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표 2>에서는 K-IFRS 도입 전·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검증하는 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종속변수 중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_1)의 평균값은 0.008, 중위수는 0.002이고 Penman and Zhang(2002)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_2)의 평균값은 -0.330, 중위수는 -0.086이며 Givoly and Hayn(2000)의 평균값은 0.734, 중위수는 0.385로서 세 종류의 보수주의 측정치 중에서 Giv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CON_1	0.008	0.198	-0.810	-0.040	0.002	0.051	0.751
CON_2	-0.330	0.964	-4.129	-0.729	-0.086	0.347	0.986
CON_3	0.734	2.331	-6.221	-0.354	0.385	1.660	5.217
SIZE	19.843	1.620	16.356	18.631	19.544	20.659	25.472
RDADV	0.016	0.025	0	0.002	0.005	0.020	0.155
CFO	0.044	0.082	-0.204	-0.003	0.043	0.090	0.278
LEV	1.497	1.408	0.039	0.625	1.151	1.809	9.273
SG	0.102	0.289	-0.993	-0.035	0.078	0.201	1.307
BIG4	0.641	0.479	0	0	1	1	1
MARKET	0.589	0.492	0	0	1	1	1

주 1) 변수정의 : CON_1 =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 CON_2 = Penman and Zhang(2002)의 보수주의 측정치; CON_3 = Giv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 SIZE = $\ln(\text{총자산})$; RDADV = $(\text{연구개발비} + \text{광고선전비}) / \text{총매출액}$; CFO = $\text{영업활동현금흐름} / \text{총자산}$; LEV =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SG = $\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BIG4 = 외부감사인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ARKET = 유가증권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표 3>에서는 K-IFRS 도입 전과 후의 보수주의 측정치의 평균과 중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_1)의 K-IFRS 도입 전 평균값 0.029와 중위수는 0.005는 도입 후 평균값 0.012와 중위수 0.001와 비교하여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서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 측정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enman and Zhang(2002)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_2)의 값의 평균값의 차이는 0.01수준에서 유의하며 중위수의 차이는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Giv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의 평균값은 차이가 없으나 K-IFRS 도입 후 중위수가 0.1수준에서 유의하게 작게 나타나므로, 단변량비교에서 모수적인 평균값과 비모수적인 중위수 값이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 측정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K-IFRS 도입 전과 후의 보수주의 측정치의 단변량 비교

	K-IFRS 도입 전		K-IFRS 도입 후		차이 검증	
	평균값	중위수	평균값	중위수	t값	z값
CON ₁	0.029	0.005	0.012	0.001	4.90***	3.94***
CON ₂	-0.264	-0.064	-0.397	-0.111	3.20***	2.22**
CON ₃	0.800	0.447	0.665	0.337	1.30	1.79*

(주1) 표(괄호 속)에 제시된 수치는 각각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p-값)을 나타냄.

(주2)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양측검정).

(주3) 변수정의: (표 2)를 참조

4.2 회귀분석 결과

<표 4>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Feltham and Ohlson(1995)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₁)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관심변수인 IFRS변수의 회귀계수는 -0.050으로서 0.0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Penman and Zhang(2002)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₂)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도 IFRS변수의 회귀계수는 -0.114로서 0.0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Giv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 변수(CON₃)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IFRS변수의 회귀계수는 -0.250으로 0.0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 보수주의 측정치로 사용한 모든 모형에서 IFRS변수가 음(-)의 유의한 값을 가지므로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RDADV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연구개발비와 광고비가 높은 기업일수록 성장의 기회가 높아 비용화되는 자본적지출이 높아 보수주의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LEV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채권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감소하여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수주의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MARKET의 회귀계수가 CON₁와 CON₂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므로 유가증권상장기업이 코스닥기업에 비하여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가증권상장기업이 코스닥기업에 비하여 상각대상자산의 비중이 크므로 감가상각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

$$CON_{1,2,3} = \beta_0 + \beta_1 IFRS + \beta_2 SIZE + \beta_3 RDADV + \beta_4 CFO + \beta_5 LEV + \beta_6 SG + \beta_7 BIG4 + \beta_8 MARKET + IND + \epsilon$$

변수	기대 부호	CON ₁		CON ₂		CON ₃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i>Intercept</i>		-0.008	-0.14	-0.962	-3.25***	0.735	0.97
<i>IFRS</i>	(-)	-0.050	-5.97***	-0.114	-2.84***	-0.250	-2.42**
<i>SIZE</i>	(?)	0.001	0.46	0.022	1.35	0.011	0.28
<i>RDADV</i>	(+)	0.330	2.05**	7.597	9.82***	-0.505	-0.25
<i>CFO</i>	(+)	-0.014	-0.26	1.367	5.34***	-3.327	-5.06***
<i>LEV</i>	(+)	0.009	3.10***	0.054	3.62***	0.141	3.63***
<i>SG</i>	(+)	-0.035	-2.35**	0.371	5.16***	0.354	1.92*
<i>BIG4</i>	(+)	-0.007	-0.74	0.241	5.12***	0.010	0.09
<i>MARKET</i>	(?)	-0.002	-0.25	-0.415	-8.58***	-0.393	-3.19***
<i>IN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Observations</i>		2,132		2,132		2,132	
<i>F-statistics</i>		6.76***		38.59***		9.08***	
<i>Adj-R²</i>		0.0221		0.1282		0.0307	

(주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양측검정).

(주2) 변수정의 : <표 2 참조>

추가분석으로 Ball and Shivarkumar(2005)의 모형에 의하여 K-IFRS 도입 이후의 보수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관심변수인 3차 상호교류항(IFRS×DCF×CF)의 회귀계수는 -1.2232로서 0.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다.

<표 5> 추가분석-Ball and Shivarkumar(2005) 보수주의 측정치

$$ACC = \alpha + \beta_1 CF + \beta_2 DCF + \beta_3 DCF \times CF + \beta_4 IFRS + \beta_5 IFRS \times CF + \beta_6 IFRS \times DCF \times CF + \epsilon$$

변수	기대부호	계수값	t값
<i>Intercept</i>		0.0066	1.63
<i>CF</i>	(-)	-0.6397	16.05***
<i>DCF</i>	(+)	-0.0185	-3.05***
<i>DCF×CF</i>	(-)	0.1014	1.08
<i>IFRS</i>	(?)	-0.0057	-1.27
<i>IFRS×CF</i>	(?)	-0.0575	-1.14
<i>IFRS×DCF×CF</i>	(-)	-1.2232	-1.81*
<i>Industry Dummy</i>		Included	
<i>Observations</i>		2,132	
<i>F-statistics</i>		118.02***	
<i>Adj-R²</i>		0.2478	

(주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양측검정).

(주2) 변수정의 : ACC=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총자산; CF=영업현금흐름/총자산; DCF=영업현금흐름이 음(-)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IFRS=K-IFRS 도입 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533개 회사로 패널표본을 구성하고 4년간에 걸친 총 2,132 기업-년 관찰치를 대상으로 하여 K-IFRS 도입 전후의 보수주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K-IFRS가 회계의 질적 특성에 보수주의를 제외하여 지나친 보수주의를 지양하는 측면도 있지만 매 보고 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검토하도록 하여 보수주의가 증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K-IFRS 도입으로 상당한 기업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과거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였으므로 보수주의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보수주의의 측정치로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Fetham and Ohlson(1995), Penman and Zhang(2002)과 Givoly and Hayn(2000)의 보수주의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가지 보수주의 측정치 모두에서 K-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과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한 감가상각비의 변동이 회계 보수주의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분석으로 Ball and Shivarkumar(2005)의 모형으로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본 분석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으로 인한 보수주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보수주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인 강민정 등(2013)의 연구는 K-IFRS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의 변화를 측정하여 조기도입 기업들이 보수주의가 미도입기업에 비하여 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는 K-IFRS가 전면 도입된 2011년을 전후로 하여 의무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로 회계보수주의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초기의 혼란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향후 K-IFRS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실무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유용성의 추세 변화를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 이호영, 이경화, 2012, “국제회계기준이 보수주의 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조기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회계학연구 제37권 제2호, pp.237~278.
- 공경태, 최종서, 2014,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경영학연구 제43권 제4호, pp.1113~1144.
- 김정옥, 배길수, 2006,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pp.69~96
- 문상혁, 2006,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보수주의의 차별적 인식”,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pp.215~242
- 박종찬, 2005,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이익의 적시성과 보수성 변화”,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pp.1~26.
- 백원순, 이수로, 2004, “보수주의, 이익지속성 및 가치평가”,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pp.1~27.
- 최관, 전성일, 2005, “보수주의, 외환위기, 재량적 발생액”,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pp.215~242.
- 최원욱, 김상일, 장금주, 2011,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pp.225~258

- Ball, R., and L. Shivakumar. 2005. Earnings Quality in UK Private Firms: Comparative Loss Recognition Timelines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83-128.
- Ball, R., and L. Shivakumar. 2006. The Role of Accruals in Asymmetrically Timely Gain and Loss Recogni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2): 207-242.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4: 3-37.
- Demaria, S., and D. Dufour. 2007. First time adoption of IFRS, fair value option, conservatism: evidence from French listed companies. Working paper. Nice Sophia Antipolis University.
- Feltham, J., and J. Ohlson. 1995. Valuation and clean surplus accounting for operating and financial activ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Spring): 689-731.
- Givoly, D., Hayn, C., and Natarajan, A. 2007. Measuring Reporting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82, 65-106.
- Heather A. Wier. 2009. Fair Value or Conservatism: The Case of the Gold Industr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Winter): 1207-1233.
- Hung. M., and K. Subramanyam.. 2007. Financial statement effect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the case of German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2: 623-657.
- Penman, S., and X. Zhang. 2002. Accounting conservatism, the quality of earnings, and stock returns. *The Accounting Review* 77: 237-264.